산재 근로자 10명 중 7명 일터로… 재활사업 효과 '톡톡'

근로복지공단

지난해 복귀율 65% '사상 최대'
맞춤형 재활서비스 복귀 앞당겨
재활지원팀 신설해 재취업 지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재활전문센터 '인천산재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재활전문센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해에 사상 처음으로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이 6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시행한 덕분이다.

특히,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이 2016년 61.9%에서 2017년엔 63.5%, 그리고 2018년 65.3%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단은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안정적으로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증 장해로 직업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에게는 재활전문가인 잡코디네이터가 1:1 맞춤서비스로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요양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의료기관을 53개소에서 111개소로 대폭 확대해 집중재활치료 제공을 강화했다.

또한 중대재해로 인한 심리불안(트라우마)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등의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신체회복과 함께 마음 치유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고 있다.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도 요양중으로까지 확대해 산재노동자의 원직장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고용기간 만료, 장해 등으로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게는 구직등록, 취업설명회,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무료 직업훈련으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으로 지난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받은 재해공무원 22명이 전문재활서비스를 통해 현업에 복귀하는 등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산재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 달성에 한층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산재관리의사(Doctor of Work-related accident, DW) 제도다. 이 제도는 산업재해의 특성과 제도를 깊이 이해하고 산재노동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의가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공단은 권역별로 재활지원팀 8개소를 신설해 광역 단위로 산재노동자의 재취업을 통합해 집중 지원하도록 현장의 기능도 개편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aT, 농식품 미국 수출 통관 팔걷어

'FDA 수입경보 컨설팅'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우리 농식품의 미국 수출 통관 확대를 위해 'FDA 수입경보(Import Alert) 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

11일 aT에 따르면 FDA 수입경보(Import Alert)는 미국 FDA(식품의약청)가 제품, 제조사 및 수입자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크게 녹색리스트와 적색리스트로 나뉜다.

녹색리스트(Green List)는 수입경보의 예외가 되는 회사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통관절차가 수월한 반면, 적색리스트(Red List)는 특정 회사의 제품이 현재 관련법을 위반했고 미래에도 위반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때 적용돼 통관이 매우 까다롭다.

aT가 지난해 연말 발간한 '미국 수입경보 사례집'에 따르면 한국 농식품이 FDA 수입경보 적색리스트에 오른 사례는 연간 160여 건으로 주요 원인은 ▲미허가 색소를 포함한 식품 ▲농약이 검출된 가공식품(혹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라벨 규정 위반 등이다.

aT 관계자는 "적색리스트에 오르면 검사과정 없이 제품 압류나 수입거절통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거래선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 관계에 있는 바이어와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해당 업체들의 통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T는 최근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와 협력해 현지화지원사업 내 'FDA 수입경보(Import Alert) 컨설팅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컨설팅을 시작한다.

aT는 적색리스트 등록업체가 수입경보를 해제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자문기관을 통해 적발사항에 대한 수정조치,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된 신청서 제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중진공 "해외거점을 글로벌 혁신성장 전초기지로"

중소벤처기업 해외거점 전략 워크숍
지역별 특성 맞춘 제품 소싱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 세계 14개국에 있는 해외거점 23곳을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상직 이사장은 지난 7~8일 중진공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거점 전략 워크숍'을 열고 "중진공 해외거점을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혁신성장 전초기지로 확 바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제품 소싱, 기술 수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진공은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해 5000여 개사에 걸쳐 67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 이사장은 또 "전국 17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육성한 청년CEO를 중진공 해외거점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유니콘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중진공 해외거점에 공유오피스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 이사장과 함께 14개국, 23개 해외거점 주재관과 해외 마케팅 담당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시장개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선 또 ▲전기자동차, 스마트공장 등 해외 거점별 특성화 지원 ▲해외 바이어, 홈쇼핑 등에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소싱 ▲신남방, 신북방국가로 기술 수출 확대 ▲해외 창업기관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 ▲시애틀 등에 신규 설치하는 글로벌 혁신성장센터 설립 계획 및 운영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7~8일 이틀간 중진공 서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과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거점 전략 워크숍을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김승호 기자 bada@

한전, 전력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모은다

'전력데이터신서비스개발' 경진대회

한국전력이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전력데이터 활용 신(新)서비스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3월 28일 서울 서초동 한전 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력이 주관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일반시민과 학생,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오는 2월 24일까지 제안서를 다운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 혹은 개인은 한전 아트센터에 마련된 데이터 공유센터에서 1개월간 서비스를 개발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간데이터의 활용도 가능하다.

심사는 완성도, 기술성, 상용화 가능성,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사내 직원과 사외 전문위원이 함께 평가하며 시상은 기업과 학생·일반인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최종 선정 팀에게는 총 14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전력데이터 서비스 마켓(EDS-Market)에 해당 서비스를 등록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리더' 수강생 모집

원주대 등 4개 대학서 진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강릉원주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2019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은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생 및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사회적경제를 선도할 핵심 인재로 양성하는 과정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본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613명의 수료생이 배출됐고, 리더과정 운영 경험을 통해 7개 대학이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 과정을 개설해 지역 사회내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수강생 모집은 수강 대상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각 분야의 전문인재로 육성하는 'semi-MBA 과정'과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미래 사회적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시키는 '학부수준 과정'으로 구분해 이뤄진다.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사회적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핵심 인재 양성의 중요성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하는 대학생과 현장 사회적경제 리더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별 모집 요건 및 수강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대학별 홈페이지 및 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